

최원섭의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② '어쩌다 마주친, 그대'(2023)

세상에 '어쩌다' 마주친 것은 없다

인생이 긴 듯하지만 지나고 보면 짧고 그 와중에 누구나 한두 가지 아쉬움은 남기 마련이다. 그래서인지 시간여행을 소재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꽤 많다. 소설가 허버트 조지 웰스(Herbert George Wells, 1886-1946)가 쓴 〈타임머신〉(1895)을 바탕으로 한 영화 〈타임머신〉(1960)을 시작으로, 〈터미네이터〉(1984)와 〈백투더퓨처〉(1985), 2000년대에는 〈데자뷰〉(2006)가 먼저 떠오른다.

외국영화에서나 보던 시간여행을 우리 드라마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된 것은 2010년대에 들어서다. 〈옥탑방 왕세자〉(2012), 〈신의〉(2012), 〈인현왕후의 남자〉(2012), 〈나인〉(2013), 〈미래의 선택〉(2013), 〈신의 선물 : 14일〉(2014), 〈고백부부〉(2017) 같은 드라마들이 쏟아져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분위기는 최근까지 이어져서 〈반짝이는 워터멜론〉(2023)이나 〈어쩌다 마주친, 그대〉(2023)도 만났다. 2020년대에는 단순히 시간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죽임을 당한 주인공이 그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과거로 가는 '회귀물'이라는 것이 새롭게 나타나기도 했다. 〈어게인 마이 라이프〉(2022), 〈재벌집 막내아들〉(2022), 〈내 남편과 결혼해줘〉(2024) 같은 드라마들이다.

우리는 왜 시간여행을 하고 싶어 할까? 시간여행 드라마를 분석한 어느 문화비평가의 말(이영미, 「타임슬립과 현재를 바꾸고 싶은 욕망」, 『황해문화』 83, 2014.6)을 빌리면, 과거를 바꿈으로써 현재를 바꾸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과거로 날아가고 싶을 만큼 현재의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이다. 그 고통은 단순히 누군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도 있지만, 부모나 자식이 죽음을 맞는 극단적인 고통도 있다.

시간여행 드라마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종교적이다.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진단 아래 안락하고 평화로운 이상향을 제시하는 것이 종교 아닌가. 그래서 불교는 현실이 세 가지 특성(三法印)을 지니고 있음을 분명히 보라고 한다. 현실 상황은 변화하고(諸行無常) 그 어떤 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으며(一切皆苦) 실체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諸法無我)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타개해 특성의 제약을 벗어나는 것을 불교의 목적(열반)이라고 가르친다.



드라마 '어쩌다 마주친 그대' 포스터.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욕망이 이뤄낸 시간여행
자기 의지 · 노력만이 '자리이타'적 변화 이끌어

오늘 소개하는 드라마는 〈어쩌다 마주친, 그대〉(2023)이다. 방송국 사회부 기자 출신 앵커 윤해준(배우 김동욱)은 우연히(!) 타임머신 자동차를 얻어 재미 삼아 시간여행을 하다가 2037년에 자신이 살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자신을 죽인 사람은 1987년 우정리 연쇄살인사건의 진범. 하지만 당시에는 다른 사람이 범인으로 체포됐다. 2021년 현재, 윤해준은 34년 만에 출소한 그를 만나 과거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1987년으로 가서 진범을 찾으려고 한다.

한편 베스트셀러 소설가 고미숙(배우 김혜은)을 전담하는 출판사 편집자 백윤영(배우 진기주)은 어머니 이순애(배우 이지현)가 신발과 유서를 남기고 주검으로 발견되자 평소 가족에 무심했던 아버지 백희섭(배우 이규회)을 저주하며 '과거로 갈 수만 있다면 어머니가 아버지와 사랑에 빠지는 것을 막겠다'는 다짐을 한다. 드라마 〈어쩌다 마주친, 그대〉는 각자의 사연을 안고 1987년으로 함께 돌아간 윤해준과 백윤영이 소망을 이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에서 1987년으로 34년을 거슬러 갔으니, 두 사람은 당연하게도 젊은 시절의 가족들을 만난다. 특히 어머니의 삶을 바꾸고 싶어하는 윤영은 1993년생으로 1987년에 열아홉 살이던 어머니 순애(배우 서지혜)보다 무려 아홉 살이나 많은 상황, 윤영이 순애를 언니처럼 돌보며 우정을 쌓는 모습이 그려진다.

세상을 떠나버린 사람을 과거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시간여행의 큰 매력이다. 그러니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애절함을 느끼는 것 또한 시간여행 드라마를 보는 맛이기도 하다. 열아홉 살 어머니를 만난 윤영의 반가움, 바쁘게 사는 자신에게 한가한 이야기나 하는 아줌마인 줄 알았던 어머니가 사실은 문학소녀였음을 알고 느끼는 미안함, 어머니의 친구였던 고미숙이 빼앗아간 소설을 되찾아주며 느끼는 통쾌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현실에서 '어머니가 살아서' 소설가로 성공해 화목한 가정을 이룬 모습을 보고 느끼는 안도감이 사실은 윤영의 것만이 아니라 드라마 시청자라면 누구나 느끼는 공통된 감정일 것이다.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 '하늘의 뜻'이라는 말이나 '시련에는 다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격려로는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진정한 위안은 오롯이 내가 현실을 마주하고 고통의 원인을 해결해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코 쉽지는 않다. 2021년과 1987년이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해준과 윤영이 하는 사소한 행동 하나도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의지를 통해 진정한 자유로움을 얻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드라마를 통해 새삼 깨닫게 된다.

정말 타임머신이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스스로 헤쳐나갈 수밖에. 시간여행이라는 경험은 오로지 나의 의지와 행동으로 내가 만들어낸 나의 세계이지 다른 그 어떤 존재가 대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시간여행 드라마는 상상이긴 해도 우리의 노력으로 지금 눈앞에 놓인 힘든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을 보여준다. 그러니 이 세상에 '어쩌다(!)' 마주친 것은 없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에서 주목해 볼 또 하나는, 해준과 윤영의 소망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들 개인의 문제만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주변에서 살아가던 1987년과 2021년의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1987년 사고로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뻔한 학생들을 해준이 구해주었더니 이들이 순애의 첫 팬이 되고, 우정리 살인사건의 진범을 잡음으로써 해준은 할아버지와 처음으로 가족애를 나눈다.

보살은 자신을 위한 일과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두고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고도 한다. 원효 스님은 일심의 근본으로 되돌아가고 중생에게 이익을 준다고 표현했다. 드라마는 2037년에 누군가에게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 1987년의 진범을 잡으려는 해준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처음 학생들을 구하면서 "앞으로 이 마을, 살려야 될 사람투성이라고" 하는 그의 대사에서 우리는 뜻밖에 보살의 삶을 본다. 자리가 곧 이타가 되고, 이타가 곧 자리가 되는 보살의 삶 이야말로 2025년을 헛되게 보내지 않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아닌가.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철저한 두타행·지계로 수행 모범 보인 선지식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③ 삼계교 창시자 신행 선사 (1)

오늘은 삼계교의 창시자인 신행 선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행 선사(540~594)는 54세라는 짧은 생애를 살았는데, 그가 생존했던 전후 2~300년의 시대는 중국 불교학의 전성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진시대 이후 나타난 격의(格義) 불교 사조는 노장(老莊)이나 유교 사상 등의 중국 전통사상의 개념을 통하여 이해하려 한 중국인들의 독특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후 현장 스님(玄裝, 602~664)이 가져온 상당한 양의 인도불전을 해석하려는 풍조는 중국불교를 본격적인 교학의 시대로 만들었습니다.

수·당 시대 중국불교의 13개 종파는 인도 지역에서 태생한 불교를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으로 변화 시켜고 적용시키면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때 나타난 13개 종파 중에서 교학에 치중되지 않은 종파가 세 곳이 있었습니다. 특히 실천지향적인 성격을 가진 곳이 바로 삼계교와 선종, 정토교였습니다.

이들 종파마다 특징이 있었습니다. 먼저, 삼계교는 민중들의 생활 깊숙이 자리하려 했는데, '취락불교'란 이름에 걸맞게 사회사업을 목표로 했습니다. 선종은 현실의 불안정함을 출입식 호흡을 도구로 삼아 깨달음을 목표로 했고, 정토종은 오로지 일불, 아미타불을 염불 칭념하여 극락세계에 가는 것을 염원하였던 것입니다.

삼계교를 만든 신행 선사는 어떤 수행을 보였을까요. 먼저 〈역대삼보기〉를 보면 "신행은 두타행으로 하루 한 끼만 걸식하였으며, 도로를 지나갈 때는 남녀를 불문하고 예배를 하는데, 그것은 마치 〈법화경〉의 상불경보살의 행동과 같았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신행 선사가 지은 〈신행유문〉을 살펴보면 "좌선이란 항시 주야를 불문하고 앉음이며, 오로지 눕지 않고 예불은 정의(淨衣)를 갖추어 삼시에 세욕(洗浴)하며, 주야에 예불하는 것을 쉬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다만 반야의 일시에 눕는 것과 낮의 일시에 식사는 제외한다"면서 철저한 계율 위주의 수행관을 보입니다.

신행 선사는 어릴 적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행유문〉에는 "소싯적부터 고생하며 좌선을 견디지 못하고, 독송도 그러하였다. 17세 이래 선지식을 구하여 지금 48세의 32년간에 이르도록 상주의 광엄사 혜정 스님, 엄정사 도전 스님, 위주의 왕선행과 조주의 완선성 등의 네 명을 얻었다"라고 기록됐습니다.

이를 보면 신행은 어릴 적부터 병약해 좌선과 강송을 활발하게 할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4명의 선지식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중 왕선행과 완선성은 재가자로, 이후 삼계교에서 선지식을 구함에 있어서 승려에 국한하지 않은 점도 종조의 영향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삼계교가 민중의 삶에 집중한 것은 종조인 신행 선사가 살았던 사회 환경과 연관이 됩니다. 이 시기는 5호16국시대로 지역 제후들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들이 이뤄졌고, 신행 선사는 수행자로 모든 참상을 목도하게 됩니다.

또한 관리들도 타락할 대로 타락해 조세 징수를 이유로 농민의 곡식과 가축들을 탈취하며 온갖 패악을 부렸습니다. 환란과 폭정에 지친 민중들은 살던 곳을 도망쳤고, 일부는 사찰에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이는 삼계교 사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삼계교에서는 교의에 의하여, 무진장을 설치하고 빈민 구제와 동시에 사산(寺産)을 구축하며 사원 경제를 표방하는데 앞장 섭니다.

무진(無盡)은 '다 함이 없다'는 뜻으로 무진장(無盡藏)은 '다함이 없는 창고'를 의미합니다. 삼계교는 위로는 삼보와 아래로는 빈민에 보시하는 '대승무진장행'을 구현하려 했습니다. 삼계교의 중심사상, 보경(普敬, 나 이외의 모든 것에 대한 공경)과 인악(認惡, 나의 잘못을 인정함)의 사상이 나타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송림사 주지〉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수행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New
캔바스 수행화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 (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되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절찬 판매중!!


그레이화이트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 사이즈 : 233~287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 소 재 : 캔바스 (내피없는 시원한 재질)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